

=====

2015년 01월 25일 주일

=====



source : 만남과 대화 god21.net

=====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희망을 가지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성자께서 <2015년
1월 1일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수석 네 개를 주워 횡재하는
꿈’을 주시고 그에 따라 ‘많은
보화들’을 얻게 하셨는데, 올해는
‘무슨 꿈을 주실까?’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성자는 ‘꿈’을 안 주시고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올해
희망의 꿈’이라고 하시며 섭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 말씀 시작 >

선생도 2014년 12월 31일
여러분이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예배드리고,
2015년 1월 1일 새벽까지 있다가
이어서 새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운을 타야 된다.
땅의 운이 있고, 하늘의 운이 있다.

지금은 <성자 시대>이니,
‘나 성자의 운’을 타야 된다. 그 운은
‘이 땅의 나의 육’을 통해 나타내고
‘나의 육’을 통해 보내 준다.”
하셨습니다.

(* 그리고 성자는
‘그 육을 통해 주시는 운’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화면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영상1> 중요

나 성자가
‘내가 보낸 자를 통해서 주는 운’은
<바다의 배의 돛>과 같고,
<공중의 독수리의 날개>와 같고,
<땅의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

자기 노력과 수고, 자기 재능과 능력은
‘자기 운’이다. 이는 마치
<돛이 없는 배>와 같고,
<날개가 없는 독수리>와 같고,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

핵심이 없으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가
‘보낸 자’를 통해 ‘운’을 주면 너희
모두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능히 갈 수 있다.
(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의 꿈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성자께서 그 육을 통해 ‘하늘의 운’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 <운>은 ‘성자’이고 ‘구원자’이며,
그 <운>을 ‘배의 돛, 독수리의 날개,
차의 엔진’으로 비유했습니다.<끝>

<뜻>은 ‘구원자’요,
<근본>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이십니다.

여기서 <뜻>은
‘삼위가 주시는 운’입니다.

고로 ‘하늘의 운을 탄 자’,
곧 ‘주의 운을 탄 자’는 그 ‘운’을
타고서 <목적한 희망의 장소>로 능히
가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노 젓는 배>와 <돛이 달린 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땅>과 <하늘>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중요

<돛이 달린 배>는 ‘바람’으로 가니
힘들지 않고, 파도를 헤치고 갑니다.

그러나 <돛 없이 노 젓는 배>는
‘손과 팔’로 저어서 가야 하니
힘들어서 머나먼 항해를 할 수 없고,
파도에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손으로 노를 젓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과 재능’이고,
<돛을 달고 가는 것>은
‘성자와 땅의 구원자의 운’입니다.

‘주의 돛’을 달지 않고 손으로 노 저어
가는 자는 힘들게 고생하며 ‘멀고 먼
365일의 신앙의 항해, 삶의 항해’를
해야 됩니다. 고로 힘들어서
‘1년의 항해’를 다 하지 못하고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돛’을 달고 가는 자는
쉽게 ‘365일의 신앙의 항해, 삶의
항해’를 하여 목적지까지 가고,
그 힘으로 ‘자기 목적과 뜻’도
이룹니다. <끝>

이 세상 사람들은 힘들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각종
생활용품을 만들어 내고, 갖은 생각을
하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힘이 안 들고, 고생을 덜 하고,
쉽고 편하게 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쉽게 돈을 벌어서 쉽고
편하게 인생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여
보다 편히 사는 자들을 보면
‘나는 언제 저렇게 살 수 있나?’
부럽기도 하고 낙심도 될 것입니다.
(*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중요

인생 바다를 항해할 때
‘자기라는 배’에 ‘내 육의 돛’을
달아라. 그것이 ‘인생의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지 않고 힘 안 들이고
인생을 쉽고 편하게 사는 길이다.

너의 중심에
‘나 성자와 내 육’을 모시고 살아라.
그것이 ‘돛을 다는 것’이고, 힘을 안
들이고 쉽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그것이 ‘운’이며 ‘형제하는 것’이며,
‘발에 감춰진 보화’다. 이 말씀이
‘꿈’대신 너희에게 주는 ‘형제하는
운의 말씀’이다.
(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발에 감춰진 보화〉를 찾고 있습니까?
얻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발에 감춰진 보화〉를 찾도록 말씀해
주겠습니다. 〈발에 감춰진 보화〉를
얻으려면, 먼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발’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묻힌 보화’도 자기 것이 됩니다.

(* 〈발〉은 무엇이고, 〈보화〉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발〉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그 시대의 하늘 뜻을 이루려고 쓰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육’이니 〈발 역할〉을 해
줍니다.

〈그 속에 묻힌 보화〉는
‘성자’입니다. 그리고 성자와 하나
된 절대신 ‘하나님과 성령님’입니다.

발을 사라는 것은

- 보낸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그를
‘자기 구원자’로 깨닫고,
- 그를 믿고 그와 일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 그 속에 묻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깨닫게 되고,
- ‘삼위’를 자기 소유로 삼고 살다가
- ‘휴거’로 〈영원한 천국 황금성〉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땅에서도 거액의 보화를 캐낸
자와 같이 잘되고 형통하여
육신쯤이야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끝〉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성자가 ‘땅에서 할 일’을
다 끝내시고 떠나시니, 땅에서 계실
때와는 다르게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양쪽 차선’을 다 사용했지만,
이제는 ‘한쪽 차선’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동쪽 문’과 ‘남쪽
문’을 다 사용했는데, 이제는 ‘남쪽 문
한 곳’만 사용합니다.

그 문으로 통하지 않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그 육’을 통해서만 도적같이
합당하게 나타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중요

너희는 ‘배’다. 내 육은 ‘돛’이다.
〈돛〉은 ‘돛단배의 날개’와 같다.
〈돛〉을 달아야 ‘세상 바다’에서 날면서
산다.

〈주의 돛〉을 달아야 힘들지 않게
편하게 전진하며 신앙의 항해, 휴거의
항해,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 〈끝〉

〈돛〉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영상6 - 그림〉

(* 여기서 선생님이 그린 돛단배의
돛을 보여 주고, 돛만 따로 떼어서
보여 준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자를 아는 사람은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돛은 ‘主’모양으로 생겼다.
‘主(주)’가 누구냐?)

성령의 눈과 귀가 있는 자는 보고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급절한 시대에 ‘돛’ 없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머나먼 인생 길, 휴거
길〉을 못 갑니다. 올해도 ‘개인
부족으로 인한 환난’이 있기에
모두 ‘돛’을 달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냥 ‘노’를 저어서 가다가는 얼마 못
갑니다. 힘이 센 장사라도 ‘돛’ 없이
‘노’를 젓고 살면 힘이 없어서 얼마 못
갑니다. 〈잠시 쉬었다가〉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중요

주(主)는 ‘생명의 돛’입니다.

‘주의 돛’을 달고서 〈전도〉도 하고
〈각종 사명〉을 하며 외쳐야 됩니다.

주(主)는 ‘희망의 돛’입니다.

‘주의 돛’을 달아야 ‘경제, 건강, 각종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면서 보람차게 살아갑니다.

주(主)는 ‘진리의 돛’입니다.

‘주의 돛’을 달지 않고 가면
‘비진리의 돛’을 달고
〈사망의 인생 바다〉로 갑니다.

주(主)는 ‘휴거의 돛’입니다.

‘주의 돛’을 달아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육’도 ‘혼’도 ‘영’도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타고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편히 가면서
시대를 희망으로 살아가며
〈휴거〉를 이룹니다.

주와 일체 되지 않은 자는
‘주의 돛을 뺀 자’입니다. 그러니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싸우며
고생하며 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파도에 밀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성자는 떠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 주(主) 〉라는 돛을 ‘뇌’에 깊이
꽃아라. 그래야 그를 통해 ‘나 성자’도
제대로 안다. 그를 제대로 가르쳐라.”
하셨습니다. 〈끝〉

〈주(主)〉라는 돛을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꽃고
‘생활’에 꽃고 인생을 쉽게 편히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오직 ‘주의 돛’만 달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돛을 꿈꾸 맨 줄들’입니다.

〈자기〉라는 배에 〈주〉라는 돛을
달아야 튼튼하고, 화평과 사랑이 넘쳐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로 인해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고,
〈교회〉라는 배에 ‘많은 생명들’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끝〉 〈잠시 쉬었다가〉

(* 오늘 핵심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들어 볼까요?) 〈영상10〉 중요

〈구원자〉는

지구 세상의 73억 명을 태운
‘지구’라는 배의 ‘돛’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이 〈돛〉을
가지고 ‘지구’를 조종하십니다.

〈돛〉은 ‘세상 바다에 묻힌 보화’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감춰진 인생 보화’를 찾게 됩니다. 〈끝〉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신 ‘주(主)라는 돛’을 단 자만

〈인생〉을 쉽게 편히 살고, 〈휴거〉도 힘들지 않게 이루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으로 모시고 〈천국 황금성〉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선생은 성자에게 ‘휴거된 영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휴거된 영들은 이제 〈황금성〉에 가는 자격자가 되었다. 고로 육신이 지상에서 사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자유롭게 〈황금성〉에 드나들게 된다.

〈휴거 잔치〉는 세상 혼인 잔치처럼 ‘하루’가 아니고 ‘한 기간’이라서 ‘한 기간’을 두고 〈황금성〉에서 ‘휴거 잔치’를 하게 된다.”하셨습니다.

〈전환〉

★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흥재하는 꿈〉은 무엇이나? 배에 돛을 달라는 말씀이다.

〈돛〉은 ‘내 육’이다.
〈배〉는 ‘너희 각자’다.
내 육으로 말미암아
나 성자는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

이제 내가 손을 놓았으니,
‘내 육의 손’을 잡아라.

〈돛〉은 ‘배의 힘’이며,
‘공중의 독수리의 날개’와 같으며
‘차의 엔진’과 같다.

〈나 성자〉와 〈나의 육〉은
‘너희의 돛’으로서 너희의
‘힘과 능력’이며
‘운’이다.

돛을 달아라! 높이 달아라!
그래야 세상 환난과 고통을 이긴다.

나 성자가 올해 진실로 ‘운’을 쏟아 주기 위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한다.

섭리의 배들아. 꼭 돛을 달아라.
돛을 안 단 자들은 출발을 안 시킨다.

돛을 달지 않은 저 배들을 보아라.
힘들어서 파도에 밀려나 울고 있다.

돛을 달지 않고 출발하려는 배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유혹에 빠져 있던 자들이다. 나 성자가 너희를 부르니,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돛을 달아라.

그리함으로 이성 유혹과 세상 유혹을 이기고, 자기중심과 자기 생각을 몰아내라.

이 시대의 지혜자가 누구냐?
‘돛’이 무엇인지 찾고 단 자다.

〈돛 없는 섭리 인생〉은 파도치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2015년 한 해 동안 또 이성에 빠지고 각종 유혹에 빠져 부끄러운 짓만 하게 된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돛’을 사라.

〈돛〉을 사야 그로 인해
‘그 속에 묻힌 나 성자’를 찾고,
나 성자와 일체 되어 얻고 누리게 된다.

사람들이 ‘나 성자와 분체’가
그리고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모르니, 세상 사람들이 ‘생명과 같이 귀하게 쓰는 존재물’을 두고 비유하여 말하였느니라.

(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생명과 같이 귀히 쓰는 것’으로 비유하여 〈주〉를 증거하고 깨닫게 하면, 거부감 없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를 증거할 때는 ‘사명의 핵’을 감추고 돛을 달라는 말씀처럼 ‘비유’로 하는 것이 ‘말의 지혜’입니다.

예수님도 〈어부〉에게는 어부가 최고로 생명시하고 귀히 여기는 ‘그물’로 비유를 들어 ‘자신’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보화를 좋아하고 생명시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밭에 묻힌 보화’로 비유하여 ‘천국’을 깨닫게 해 주고 귀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길과 생명’으로 비유를 들어 ‘자신’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네 영을 살리는 의사가 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따른 후에 “그것이 나다. 너를 구할 자가 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그 사람이 가장 귀히 여기는 존재물’이나 ‘그 사람이 최고로 사랑하는 자’로 비유를 들어 〈구원자〉를 가르쳐 주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귀한 존재’이며 ‘그 사람보다 더 영원히 너를 사랑해 줄 귀한 자’라고 비유해 주며 〈말씀〉을 넣어 줘야 됩니다.

꼭 〈핵〉은 감추고
‘귀한 사람’이나 ‘귀한 존재물’로 비유를 들어 ‘구원자’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마다 좋게 인식하는 것’이나 ‘매일 보고 귀히 사용하는 것들’을 말해 주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 말씀을 좋게 인식하고 말씀이 뇌에 쏙쏙 잘 들어갑니다.

〈진리〉가 ‘돈’같이 소중하고 유익을 주니,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 영과 육이 다 잘되는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면 무엇을 얻는지 보라고 하며 ‘희망’을 줘야 됩니다.

증거하는 대로
성자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잠시 쉬었다가〉

사람의 〈인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식을 뒤엎어야 ‘진리’가 들어갑니다. 고로 인식을 뒤엎으려면 ‘합당한 비유’로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육 사랑〉을 좋아하는 자에게
“육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권태가 있다. 육의 사랑으로는 얻지 못하는 ‘황금 같은 사랑’이 있다. 너도 배우고, 그 사랑을 해 보아라.” 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며 희망을 주면서 무한한 전능자 신의 사랑, 영의 사랑, 배의 뜻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자께서
‘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신 참된 진리’로 그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며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뜻을 단 배〉의 ‘뜻’같이 필요하다고 인식시키면서,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육적 사랑〉도 〈영적 사랑〉으로 행하면 1000배, 10000배 더 느끼고 가치 있고, 육도 영도 건강하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혜의 비유〉로 설명을 잘해 줘야 ‘그릇된 인식의 배의 뜻’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섭리사에 온 지 20년이 되도록 ‘선생’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는데, 〈2014년 크리스마스의 장편 설교〉를 듣고 〈시대〉가 바뀌면 ‘말씀’도 ‘사명자’도 바뀐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설명을 잘해 줘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밤’이 ‘낮’이 되고, 〈시대〉가 가면 ‘그 시대 사람’으로 바뀌고, ‘건물’이 바뀌고, ‘차’도 바뀌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어린 딸’이 결혼하여 ‘엄마’가 되고, 〈시대〉가 더 가니 ‘엄마’가 ‘할머니’가 되고, 〈시대〉가 더 가니, ‘할머니’가 죽듯이,

〈시대〉가 가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는 구원자’도 바뀐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선생은 10대에 이 진리를 깨닫고 〈새 시대의 것〉을 배우고 믿고 따르니 〈시대 사명자〉가 됐습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빠른 구름’, 곧 ‘빠른 자’를 쓰십니다.

전도할 생명들이 많은데
〈설명〉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자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말해 줘야 귀에 면봉을 끼우듯, 〈말씀〉이 상대의 마음에 쏙~ 시원하게 들어갑니다.

〈전환, 말씀 마무리〉

* 말씀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뜻을 달아라.
- 이 말씀은 성자께서
〈꿈 대신 주신 말씀〉으로
〈올해 최고의 말씀〉이며,
〈1년 동안 최고로 잘되는 방법의 말씀〉입니다.

12월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고, 보화도 얻고, 행복도 얻고, 보람도 누리고, 사랑도 지혜도 운도 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자기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만큼
사탄이 침입한다. 고로 반드시
‘부족한 것들’을 채우며
‘자기 할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뜻’만 ‘자기라는 배’에 달면 됩니다.

〈뜻〉은

‘성자의 육’입니다.
‘성자의 분체’이며,
‘성자의 구원의 심부름꾼’입니다.

이제 성자가 떠나시니,
‘그 육, 분체, 심부름꾼’을 스마트폰
위듯 꼭 쥐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자와 통합합니다.

〈뜻〉을 달면,
‘뜻’이 방향을 잡고 배를 몰고 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노’를 저으면,
자기 생각과 자기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방향을 잃고
힘들어합니다.

〈뜻〉을 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고 능력과 권세로 힘껏 역사하여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육으로 쓰시는
‘구원자의 뜻’을 달아라!”한 것입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잘되고 형통합니다.

〈구원자〉를 알아야 됩니다.

〈구원자〉를
아는 만큼 구원해 주고,
아는 만큼 형통하고,
아는 만큼 행하게 되고,
아는 만큼 휴거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영상11〉 중요

〈구원자〉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연결되어
‘휴거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항상 ‘육’을 통해서 ‘영의 세계’로
갑니다.

〈성자의 육〉이 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사됩니다.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자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며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보고
그려야 그리는 대로 그려지지만,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연결되면,
‘신호’가 오고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가 전화를 걸어야 통하듯이,
자기가 〈성자의 육〉과 교통해야
느껴집니다.

그것이 일체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끝〉

선생은 여러분의 혼과 영과 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니,
안 통하는 것입니다.
본인만 찾고 부르면, 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해야 해집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찾고 부르는 자는
〈주의 뜻〉을 ‘뇌’에 꽂고 ‘생각’에 꽂은
자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영상12〉 중요

〈땅의 핵〉인
‘보낸 자의 돛’을 달아야
〈하늘의 핵〉인
‘성자의 돛’도 달게 됩니다.

〈핵〉은 ‘핵폭탄’과 같습니다.
〈보는 데 핵〉은 ‘눈’이며,
‘마음의 눈, 영의 눈’입니다.

바다의 〈배의 핵〉은 ‘돛’입니다.
땅의 〈자동차의 핵〉은 ‘엔진’입니다.
공중의 〈독수리의 핵〉은 ‘날개’입니다.
〈이 세상과 천국의 핵〉은
‘삼위일체’이며 ‘구원자’입니다.

〈핵〉은
‘답’입니다.
‘주인’입니다.

〈핵〉을 알고
〈핵〉과 일체 되면,
성공합니다.

성자는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돛을 단 큰 배’다.
수영한 후에 지쳐서 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배에 태우는 자가 되어라.
지쳐 방향을 잃고 다니다가는
바닷물을 먹고 죽으니, 잘 보아라.
또한 악인이 배에 기어오르는지
잘 보아라.” 하셨습니다.

환난 때나 어려울 때나
‘핵심자, 주’만 찾고 믿으면 이깁니다.
인생의 희망은 ‘핵심자’입니다.

〈이 시대 하늘의 운〉은

‘구원자’입니다.

그는 ‘인생의 돛’입니다.

그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그 돛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꽂고,
그를 꼭 붙들고 〈섭리의 항해〉를 하고,
〈휴거의 항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보화〉를 찾게 되고,
〈인생의 운〉을 타게 되고, 휴거되어
〈영원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됩니다. 〈끝〉 〈전환〉

(* 오늘 말씀 멋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영상과 함께
〈성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상13〉 매우 중요

〈돛〉은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독수리〉는 ‘무기’를
열다섯 개나 지니고 다닙니다.

철창(鐵槍) 같은 발톱 여덟 개,
철창 같은 부리 한 개,
철 몽둥이 같은 좌우의 날개 두 개,
레이더와 같은 눈 두 개,
초인 같은 힘,
그리고 시속 180km로 빠르게 나는
속도가 무기입니다.

고로 독수리는 ‘공중의 왕’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그리고 주는

‘독수리와 같은 돛’입니다.

〈자기〉라는 ‘배’에

‘독수리와 같은 삼위일체와 주의 돛’을
달면, 인생의 항해, 신앙의 항해,
섭리의 항해, 휴거의 항해,
2015년의 항해는
문제없습니다!

돛을 달아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성삼위의 큰 축복〉과
〈운〉을 부어 줍니다.

〈축 도〉